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8. 6.(목)	사진 · 영상	사진(O),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8월 6일(목)부터		
담당부서	도시환경전문위원실	담당자	정경호 전문위원(044-300-7470)
			이세희 주무관(044-300-7475)

세종시의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반기 첫 현장방문 실시

-제2호 크린넷 집하장과 상하수도사업소 찾아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의장 안신일)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6일 위원회 구성 이후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및 수자원 관리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순열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크린넷 집하장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 보며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먼저, 제2호 크린넷 집하장을 방문해 쓰레기 수송, 집하 및 탈취 설비의 작동 실태를 점검했다. 박병남 위원은 인근 주택가 악취로 인한 지속적인 주민 불편 민원 발생을 지적하며 “악취 원인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란희 위원은 "탈취 설비의 효과성 등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시설 개선과 악취 저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 처리 체계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정연희 위원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안전을 위해 근무 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개선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처리공정 전반에 대한 처리 수준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수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순열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현안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